

김응용 시구·김성한 시타... 레전드들의 화려한 개막 무대



타이거즈 왕조 일군 멤버들 그라운드 등장
김응용, KIA 전신 해태 감독 시절 9회 우승
김성한, 투타 맹활약... 김중모, 정교한 타격

'타이거즈 왕조' 주역들이 나란히 한국시리즈 그라운드에 올랐다.

2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개막한 2024 신한 SOL뱅크 KBO 한국시리즈의 1차전 시구자로 김응용(83) 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이 나섰다.

김응용 전 회장은 타이거즈의 왕조 시대를 함께 한 김성한 전 감독, 김중모 한국야구위원회(KBO) 재능기부위원회 그라운드에 등장했다.

건강한 모습으로 성큼성큼 마운드로 향한 김응용 감독은 시구자로 앉은 김중모를 향해 공을 던졌고, 타석에 있던 김성한은 방망이를 휘두르면서 한국시리즈 개막을 알렸다.

김응용 전 회장은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에서 왕조를 구축한 프로야구 산중인이다.

김응용 전 회장은 1983년 KIA 전신 해태 사령탑에 올라 감독 데뷔 첫해부터 우승을 달성하는 등 한국시리즈 9회 진출 및 9회 우승이라는 위업을 이뤘다.

삼성에서도 김응용 전 회장은 우승 감독에 등극했다.

2001년 사자군단의 지휘봉을 잡은 그는 2002년 다시 한번 한국시리즈 우승 이력을 더했다.

김응용 전 회장은 야구인 첫 사장 타이틀도 달았다. 그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삼성 구단 사장으로 책임하면서 삼성 왕조 시대를 이끌었다.

김응용 전 회장은 한화 이글스에서도 지휘봉을 들었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도 역임했다.

김응용 전 회장과 함께 한 김성한과 김중모도 타이거즈의 '한국시리즈 불패 신화'를 만든 레전드다.

타이거즈의 창단 멤버이기도 한 두 사람은 창단 첫 우승 순간에도 함께 했다.

KIA 사령탑을 지낸 김성한 전 감독은 프로 첫 해였던 1982년 투타에서 모두 놀라운 활약을 펼친 원조 '이도류'다.

1982시즌 80경기에 나와 318타수 97안타, 0.305의 타율을 기록했던 타자 김성한은 마운드에서는 2.79의 평균자책점을 찍은 10승 투수이기도 했다.

김중모 위원은 정교한 타격으로 명성을 날리면서 삼성의 전설적인 타자 장효조와 함께 '좌효조 우중모'로 통했다. 김중모 위원은 첫 우승을 이룬 해 외야수 골든글러브까지 수상했다. 그는 2009년에는 KIA의 수석코치로 V10 순간을 경험했다.

한편 한국시리즈 1차전 예극가는 규현이 맡았다.

보이그룹 슈퍼주니어의 메인 보컬이자 15년차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규현은 부드러운 음색과 타고난 감성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전설들의 시구·시타 21일 광주-기아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2024 KBO 한국시리즈 1차전 경기. 1983년 KIA타이거즈가 한국시리즈 첫우승했을 당시의 주역이었던 김응용 전 감독을 비롯한 김성한, 김중모 선수가 시구, 시타, 시포자로 나서 한국시리즈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한국시리즈 말·말·말

▲부담감은 같아요 = KIA 이범호 감독은 부임 첫해 정규시즌 우승을 이끌면서, 사령탑으로 첫 한국시리즈 무대까지 밟았다. 첫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초보로서 부담은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은 이범호 감독은 "베테랑 감독이나 처음 하는 감독이나 부담이 된다. 누구나 부담되는 시리즈니까 개의치 않고 하겠다"며 "선수 때와 다를 것이다. 감독이 덜 긴장하고 선수들이 하는 플레이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이지 않고 똑같은 생각으로 다들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즐겁게 하겠다"고 한국시리즈

이범호 "초보든 베테랑이든 부담은 같아"

에 나서는 각오를 밝혔다.

▲처음이라 = 턱 관절 골절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을 일찍 마무리했던 제임스 네일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회복력을 보여주면서 한국시리즈 1차전 선발까지 맡았다. 사실상 부상 복귀전을 한국시리즈라는 큰 무대에서 치르게 된 만큼 네일에게 한국시리즈가 개막한 21일은 특별한 하루가 됐다. 네일은 긴장감과 기대감 속에 이날 평소 선발 때와

다르게 일찍 경기장에 등장했다. 덕아웃에서 선수들의 훈련까지 지켜보면서 시작한 하루. 이를 본 주장 나성범은 "생각보다 빨리 경기장에 나온 것 같다. 긴장도 될 것이다. 긴 공백이 있었고 처음 하는 큰 경기"라고 이야기했다.

▲ABS가 문제였어요 = 박찬호는 삼성 투수 원태인의 '킬러'로 꼽혔었다. 최근 몇 년 유독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박찬호는 원태인과의 승부에서 자신

감을 보여왔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박찬호는 올 시즌 원태인을 상대로 6타수 1안타, 0.167의 타율에 그쳤다. 이에 박찬호는 "ABS(자동투구판독 시스템)가 문제였다. ABS가 적용되면서 원태인 선수가 로케이션에 변화를 줬다. 그 전에는 로케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투구 패턴을 예측했었다. 그런데 올해 달라졌다"며 "한국시리즈에 맞춰 잘 준비를 했다. 준비한 게 결과로 나오면 좋겠다"고 웃었다.

▲좌투수가 많아서 = 삼성 박진만 감독은 1차전 4번 타자를 강민호에게 맡겼다. 박 감독은 "훈련으로 좋은 느낌 갖고 있을 것이고 네일이랑 상대를 많이 해봤지만 강한 면이 있었다. KIA 불펜에 좌

투수가 많다 보니까 좌우타선 가능성이 높아서 4번 타자에 넣었다"며 "네일 선수를 빨리 끌어내려줬으면 좋겠다"고 웃었다. KIA는 한국시리즈 30인 엔트리 중 14명을 투수로 채웠고, 이 중 8명이 좌완투수다. 사이드암 임기영 대신 좌완 김대유도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이범호 감독은 "임기영과 김대유 고민했는데 삼성에 언더볼을 잘 치는 타자들이 많다"며 "곽도규나 최지민이 포스트 시즌을 처음 경험하는 신진급 선수라 컨트롤이 흔들리면 이준영과 김대유를 넣으려고 일부로 원족을 한 명 더 선택했다. 베테랑 두 선수를 넣어서 끊어가는 상황을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여울 기자 wool@

광주FC, 조호르 딛고 ACLE 3연승 도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3차전
오늘 용인서 말레이시아 상대



지난 1일 2024~2025시즌 ACLE 2차전 기와사키와의 원정경기에서 광주FC 김진호가 드리블을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광주FC가 아시아무대 3연승을 노린다.

광주는 22일 오후 7시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조호르 다를 탁집(말레이시아)을 상대로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리그스 테이블지 3차전을 갖는다.

구단 사상 첫 아젠 무대에 진출한 광주는 앞서 치른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신고했다.

일본 요코하마와 마리노스와의 홈경기에서 아사니의 헤트트릭을 앞세워 7-3 대승을 거둔 광주는 일본 가와사키 원정에서도 아사니의 페널티킥 골을 지키면서 1-0, 연승에 성공했다.

광주는 동아시아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연승을 기록하며 1위에 자리하고 있다. 광주는 말레이시아 최강팀 조호르를 상대로 승점 3점을 더하면서 16강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각오다.

01년생 '등갑내기' 허울과 변준수에게 시선이 쏠린다.

두 사람은 K리그1 33라운드 서울전과 파이널라운드 첫 경기였던 대구FC와의 34라운드 홈경기에서 나란히 골 세리머니를 펼쳤다.

시즌 중반 센터백으로 깜짝 변신했던 허울은 서울전에서 원래 자리인 '장신 공격수'로 이동, 변준수의 패스를 받아 득점을 기록했다. 변준수는 대구와의 경기에서 최경록의 프리킥을 헤더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며 두 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올렸다.

광주가 K리그1에서 '생존싸움'을 벌이는 등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로테이션 가동이 절실하다. 올 시즌 출전 기회가 적었던 선수들이 ACLE 3차전 승리를 위해 스파이크 끈을 조여 줬다. 센터백과 풀백을 오가며 수비 한축으로 자리한 조성권과 부상에서 복귀해 대구전 엔트리

에 이름을 올린 허승은 이정효 감독의 출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3연승 길목에서 만나게 된 조호르는 리그 10연패를 이룬 말레이시아 최강팀이다.

올 시즌에도 10승 1무를 기록하며 무패행진을 펼치고 있다. ACLE에서도 중국의 '강호' 상하이 선화와의 상하이 하이강과의 승부에서 1승 1무를 기록하고 있다.

조호르는 말레이시아 국가대표 선수들과 수준급의 외국인 선수로 막강 전력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한국을 상대로 페널티킥을 성공시킨 아이만을 경계해야 한다. 그

는 ACLE 2경기에서 3골을 몰아넣으며 패조의 컨디션은 보여주고 있다.

수원삼성과 부산아이파크에서 활약했던 브라질 공격수 베르그송도 주의 인물이다. 그는 리그에서 14골을 기록하면 득점 1위에 자리하고 있다. 조호르에는 K리그를 잘 아는 수원삼성 출신 센터백 박준형도 있다.

광주는 광주월드컵경기장 그라운드 사정으로 원정 같은 홈경기를 치르게 됐다. 장거리 이동을 하느라 체력 부담은 있지만 좋은 잔디에서 광주가 준비한 축구를 펼칠 수 있다는 점은 반갑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 생활체육 동호인 우정·화합 다졌다



지난 20일 완도 청해진스포츠펠드에서 제36회 전남생활체육대축전 폐회식이 열렸다. 입장상과 참여상을 수상한 시군선수단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완도·해남서 3일간 열전 마무리
여수 최우수상·광양 종목 1위

전남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우정과 화합을 도모한 '제36회 전남생활체육대축전'이 3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완도와 해남 일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전남 22개 시·군 선수 7000여명이 출전해 24개 종목(정식 22·민속 1·시범 1)에서 기량을 겨뤘다.

20일 완도 청해진스포츠펠드에서 치러진 폐회식에서는 종합시상과 대회기 전달, 경품추첨 등이 진행됐다.

이번 대회 최우수상은 개회식에서 여수공업고 밴드부의 합주행진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였

던 여수가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신안과 해남, 장려상은 광양·곡성·목포·담양·강진이 받았다.

또 일주일에 3번, 30분은 운동을 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인 '7330' 캠페인의 이름을 딴 스포츠7330상은 영암에게 돌아갔다.

시·군 대항전으로 전개된 종목별 경기에서는 광양이 배드민턴·산악·수영·육상 종합·축구 종합 5개 종목에서 가장 많은 종목 1위를 차지했고, 각 2개 종목씩 우승한 신안군(바둑·볼링), 해남군(농구·축구), 화순군(그라운드골프·탁구), 여수시(배구·테니스)가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민속경기인 줄다리기, 화순, 시범경기인 파크골프는 장성이 각각 1위에 올랐다.

제37회 대회는 오는 2025년 10월 영광에서 개최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